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된 상태에서 앞을 내다보는 두 권의 책이 있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이다. 에스겔서는 종교적인 회복을 미리 보여주고, 다니엘서는 정치적인 회복을 전망한다. 본서의 저자는 에스겔로 유다의 암흑시대인 바벨론 70년간 제사장과 선지자로 사역했다. 에스겔은 예언, 비유, 표적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비록 그들이 보기에는 마른 뼈들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다시 한번 그 나라로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이다. 현재의 심판은 네가 여호와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 장래 영광이 따라올 것이다.

I. 에스겔서의 저자와 기록연대

본서의 이름이기도 한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혹은 하나님에 의해 강하게 된다는 뜻이다. 에스겔은 실로 그가 부름 받은 (3:8-9) 선지자 사역을 위해 하나님으로 강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본서에 두 번 나오며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칠십인역에서 헬라어 형식은 Iezekiel 이며 벌게이트역에서 라틴어 형태는 Ezechiel 이다.

에스겔은 부시의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으며, 예레미야와 다니엘의 동시대인인 에스겔이 본서의 저자이다.

- 1) 분명히 에스겔이 저자임을 주장한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였다(1:1-3)
- 2) 전 책을 통하여 묵시적 문체의 일관성이 있다.
- 3) 전 책이 제사장적 입장에서 기록되었는바 제사장적 배경이 주어졌음을 기대케 한다(제사, 성전 등)
- 4) 초기 유대인 교사들과 많은 성경 비평가들 모두가 에스겔이 저자였음에 동의한다.

기록연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 당한 후에 기록했다. 에스겔의 바벨론 거처는 유대인 포로의 대운하였던 그발강가의 주 거류지 텔라이브였다 (1:1; 3:15, 23). 에스겔은 아마도 주전 565년경에 본서를 썼을 것이다.

II. 에스겔서의 수신인

에스겔은 본서를 먼저 바벨론에 포로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들은 낙심한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 갈수 있다는 거짓된 소망으로 미혹되어 있었다.

III. 에스겔서의 주제들

에스겔서는 다른 모든 선지서들 처럼 이중의 주제를 가진다. 그것은 정죄(1-32 장)와 위로(33-48 장)이다. 바벨론에 포로된 초기 유대인들에 대한 그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의 사역과 비슷했다. 그는 유다

백성 위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죄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본국으로 조기에 귀국하리라는 잘못된 소망의 어리석음을 폭로한다.

- 1)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반드시 실패한다.
- 2)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 3)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
- 4)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 5)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 6)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 7) 장차 여호와를 중심으로 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IV. 에스겔의 구성

에스겔의 개요는

- 1) 심판의 예언들 (1-32 장)
 - (1)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1-24 장
 - (2)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5-32 장
- 2) 회복의 약속과 메시아의 영광 (33-48 장)
 - (1) 에스겔이 파숫꾼으로 지명됨 33 장
 - (2) 오시는 참 목자 34 장
 - (3) 이스라엘의 회복 35-37 장
 - (4) 침공자 곡을 이기는 승리 38-39 장
 - (5) 메시아 왕국의 영광, 새 성전 40-48 장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구성은 1) 에스겔의 위임 (1-3 장) 2) 유다에 대한 심판 (4-24 장) 3)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25-32 장) 4) 이스라엘의 회복 (33-48 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V. 에스겔서의 목적

- 1) 역사적 목적: 포로된 선지자로 에스겔의 의도는 그들의 총명한 마지막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주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었다. 또 본국으로의 조기 귀환에 대한 거짓된 소망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었다.
- 2) 교리적 목적: 에스겔의 중심이 되는 교리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다 (1:28; 10:4).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공의의 변호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필요했다 (11:12). 그리고 마침내 본서는 그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강조한다.
- 3) 기독교적 목적: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10:18, 19), 언약의 갱신자(16:60), 양떼의 목자(34:23), 성전의 청결자 (26:24), 이스라엘의 갱생자 (36:25, 26)로서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전 책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자를 소개하고 있다. 메시아는 다스릴 권리가 있으신 왕이시며(21:26-27) 그의 무리를 구원하시고 먹이실(34:11-31) 참 목자시다.

VI.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 1) 높은 산에 심겨는 백향목의 연한 가지 (17:22-24)
- 2) 관과 면류관을 마땅히 얻을 자 (21:26-27)
- 3) 솟아나는 뿔 (29:21)
- 4) 화평의 언약의 주인공이신 참 목사 (34:23-31)
- 5) 다윗의 통치권을 이어 받은 영원한 왕 (37:24-28)
- 6)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 당할 자 (3:25)

VII. 에스겔서의 핵심 단어, 핵심 절, 핵심 장

- 1) 핵심 단어 : 이스라엘의 회복
- 2) 핵심 요절 : 36:24-26; 36:33-35
- 3) 핵심 장 : 37 장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에 중심은 마른 뼈의 골짜기에 대한 환상이다. 37 장은 이스라엘의 장래의 분명한 단계들을 약속한다.